

##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관계

유현정<sup>1</sup> · 김관희<sup>1</sup> · 이하정<sup>1</sup> · 박보미<sup>1</sup> · 박수빈<sup>1</sup> · 박주희<sup>1</sup> · 박진희<sup>1</sup> ·  
반민주<sup>1</sup> · 임지현<sup>1</sup> · 박준후<sup>1</sup> · 이예은<sup>2</sup><sup>1</sup>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sup>2</sup>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Cultural Capacit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Yoo, Hyunjung<sup>1</sup> · Kim, Kwanhee<sup>1</sup> · Lee, Hajeong<sup>1</sup> · Park, Bomi<sup>1</sup> · Park, Subin<sup>1</sup> · Park, Juhui<sup>1</sup> · Park, Jinhui<sup>1</sup> ·  
Ban, Minjoo<sup>1</sup> · Lim, Jihyun<sup>1</sup> · Park, Junhoo<sup>1</sup> · Lee, Yee Eun<sup>2</sup><sup>1</sup>Undergraduate, Department of Nursing, Chung cheong University, Cheongju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 cheong University, Cheo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cultural capacit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0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from 6 universities in C city,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2.0. **Results:** Cultural sensitivities in this study ( $r=.372, p<.001$ ), cultural knowledge ( $r=.399, p=.001$ ), cultural awareness ( $r=.547, p<.001$ ), and cultural technology ( $r=.550, p<.001$ ) eac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inforcement of the 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in-depth exploration of the cultural area and religious inspection, cultural and professional backgrounds, assessment and consideration of cultural characteristics, nursing diagnosis, and health appropriate to the cultural background.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 such as service provision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Key Words:** Cultural capaci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기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약 230만 명 정도로 2016년 200만 명, 2017년 210만 명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 인구분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 의료 현장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외국인을 접할 수 있으나 다문화 대상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으로 의

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많은 곤란을 겪는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아직까지 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역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다문화 대상자와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간에 문화가 다르고, 상호간 언어가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대상자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 등 때문에 건강제공자의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까지 이해하기 어려워 치료나 간호지시를 수월하게 이행하지 못한다[2]. 그러므로 간호대학

**주요어:**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간호학생

**Corresponding author:** Lee, Yee Eun

Department of Nursing, Chung cheong University, 38 Wolgok-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 28171, Korea.  
Tel: +82-43-230-2778, Fax: +82-43-230-2779, E-mail: leeyeun1207@naver.com

**Received:** Nov 19, 2019 / **Revised:** Dec 12, 2019 / **Accepted:** Dec 27, 2019

## 연구방법

생들은 조기에 다문화간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타 문화권에 속한 대상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간호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문화적 역량이란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 관습, 행동 등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능숙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3,4]. 문화적 역량은 외국어가 능통하다거나 해외에서의 거주경험이 많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을수록 습득하기 쉽다[5]. 낮은 문화적 역량은 외국인 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간호사와 대상자의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소 중 하나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고되어 있다[6]. 간호사와 외국인 대상자는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7]. 간호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신뢰적 관계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사정과 간호처치로 대상자의 안전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간호에 있어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때문에 간호사는 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들만의 문화를 고려한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8].

따라서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 현장 직접 간호할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것들이 적절히 형성되어 있는가를 확인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에 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예비 전문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관계를 알아보고 문화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 및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한다.
-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6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4를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3으로 하고, 유의수준은 .05, 검정력은 .9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11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20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료분석에 불충분하게 응답한 대상자 4명은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본 연구 최종 대상자는 200명이었다.

## 3. 연구도구

### 1) 문화적 역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간호사의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덕희(2013)가 개발한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단축형)를 사용하였다[4].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하위영역은 다문화 인식(4문항), 다문화 지식(3문항), 다문화 민감성(4문항), 다문화 기술(3문항)로 구성되어있다.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문항의 총 합산 점수의 범주는 14점에서 56점까지이다. 산출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2)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2011)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9]. 본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하위영역은 문화간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능력(10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지식에 대한 능력(10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능력(10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인식에 대한 능력(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문항의 총 합산 점수의 범주는 40점에서 160점까지이다. 산출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측정된 결과 전체 Cronbach's  $\alpha$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6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 전 온라인 설문지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도중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17일부터 2019년 9월 09일까지 실시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8분이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경험,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은 t-검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145명(72.5%), 4학년이 92명(46%)로 가장 많았다.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27명(63.5),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17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영어 능력으로 '못함' 응답한 대상자가 109명(53.5%), 외국인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56명(78%)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 실습 중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04명(52%),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17명(58.5%), 다문화 관심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96명(48%)으로 가장 많았다(표 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문화간 의사소통은 영어 능력 수준( $F=3.798, p=.024$ ), 다문화 교육 경험( $t=3.323, p=.001$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 능력 수준에서 사후 분석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 3.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정도

문화적 역량의 총점평균은 39.9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문화적 민감성은  $12.43 \pm 1.92$ 점, 문화적 지식은  $6.98 \pm 1.88$ 점, 문화적 인식은  $12.35 \pm 1.87$ 점, 문화적 기술은  $8.18 \pm 1.65$ 점이었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총점평균은  $118.55 \pm 13.46$ 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의사소통기술은  $30.39 \pm 3.77$ 점, 의사소통지식  $27.29 \pm 4.70$ 점, 의사소통태도  $31.38 \pm 3.64$ 점, 의사소통인식  $29.49 \pm 3.93$ 점이었다(표 2).

### 4.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적 민감성( $r=.372, p<.001$ ), 문화적 지식( $r=.399, p<.001$ ), 문화적 인식( $r=.547, p<.001$ ), 문화적 기술( $r=.550,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 5.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을 포함시켰으며, 일반적 특성 중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문화 교육경험 유무, 영어능력 수준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6.064, p<.001$ ). 대상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민감성( $\beta=.195, p<.001$ ), 문화적 지식( $\beta=.214, p<.001$ ), 문화적 인식( $\beta=.275, p<.001$ ), 문화적 기술( $\beta=.339, p<.001$ )이었고, 설명력은 총 51.4%였다(표 4).

## 논 의

최근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다문화 대상자에게 의료를 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문화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N=200)

일반적 특성	구분	n (%)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M±SD	t or F	p
성별	남	55 (27.5)	117.53±14.95	0.657	.512
	여	145 (72.5)	118.93±12.89		
학년	1학년	36 (18.0)	118.67±11.08	1.431	.235
	2학년	36 (18.0)	114.89±12.10		
	3학년	36 (18.0)	117.72±14.99		
	4학년	92 (46.0)	120.25±14.07		
임상실습 경험	있음	127 (63.5)	119.41±13.90	1.199	.232
	없음	73 (36.5)	117.04±12.63		
종교	있음	83 (41.5)	119.52±13.59	0.860	.391
	없음	117 (58.5)	117.85±13.39		
영어능력	못함	109 (54.5)	116.19±13.69	3.798	.024
	보통	84 (42.0)	121.48±13.00		
	잘함	7 (3.5)	120.00±8.66		
외국인 친구	있음	44 (22.0)	119.39±13.19	0.468	.640
	없음	156 (78.0)	118.31±13.58		
다문화 대상자	있음	104 (52.0)	119.28±13.69	0.341	.711
	없음	35 (17.5)	117.37±14.42		
	해당없음	61 (30.5)	117.97±12.63		
다문화 교육경험	있음	117 (58.5)	121.15±14.07	3.323	.001
	없음	83 (41.5)	114.88±11.07		
다문화 관심도	적음	66 (33.0)	116.05±15.13	2.748	.067
	보통	96 (48.0)	118.74±11.30		
	많음	38 (19.0)	122.39±14.77		

표 2.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정도 (N=200)

변수	항목	M±SD
문화적 역량감	총점	39.94±4.78
	문화적 민감성	12.43±1.92
	문화적 지식	6.98±1.88
	문화적 인식	12.35±1.87
	문화적 기술	8.18±1.65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총점	118.55±13.46
	의사소통기술	30.39±3.77
	의사소통지식	27.29±4.70
	의사소통태도	31.38±3.64
	의사소통인식	29.49±3.93

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이 필요하며,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적 역량의 평균평점은 4점 만점의 2.85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문화적 역량의 하부 범주 별 평점은 문화적 민감성 3.10점, 문화적 지식 2.33점, 문화적 인식 3.09점, 문

화적 기술 2.73점으로 하부범주들 중에서 문화적 민감성이 다른 하부 범주들보다 가장 높았다. 또한 문화적 지식이 다른 하부 범주들보다 가장 낮았으며 하부 범주들 모두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감의 하위영역인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이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은미[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과 공감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민감성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려는 태도, 행동, 신념이고[13], 문화적 기술은 기존에 습득한 인식과 지식과 민감성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능력이 다[14]. 나와 다른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기술 능력 역시 높았으며 이는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상관

표 3.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N=200)

변수	문화적민감성	문화적지식	문화적인식	문화적기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r (p)				
문화적 민감성	1				
문화적 지식	.007 (.920)	1			
문화적 인식	.330 (<.001)	.263 (<.001)	1		
문화적 기술	.180 (.011)	.291 (<.001)	.359 (<.001)	1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372 (<.001)	.399 (<.001)	.547 (<.001)	.550 (<.001)	1

표 4.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00)

변수	B	SE	$\beta$	t (p)
문화적 민감성	1.368	0.374	.195	3.653 (<.001)
문화적 지식	1.533	0.380	.214	4.033 (<.001)
문화적 인식	1.981	0.413	.275	4.793 (<.001)
문화적 기술	2.759	0.445	.339	6.204 (<.001)
영어능력	-1.758	1.370	-.065	-1.283 (.201)
다문화 교육경험	2.563	1.384	.094	1.852 (.066)

Adj. R<sup>2</sup>=.514, F=36.064, p<.001

관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거나 다문화 관련 특성을 많이 접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결과에서 다문화 교육경험의 여부가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다[15-18]. 다문화 교육을 통해 환경, 세계 여러 문화와 문화적 행동 등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고, 개방성과 수용성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다문화 대상자를 상대하는 태도와 변화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교육을 받은 후 긍정적인 인식을 갖춘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날 때 편견이나 차별이 나타나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다문화 교육을 받은 후에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19].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 간 의사소통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평균평점은 4점 만

점의 2.96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은미[9]의 논문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총 평점은 5점 만점에 3.18점보다 높았으며, 이두원[10]의 미국 내 대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의 전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정도인 3.08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총 평점은 5점 만점의 3.19점, 미국 내 대학생의 총 평점은 5점 만점의 2.97점으로 본 연구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10]. 본 연구결과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하부범주별 평점은 4점 만점의 문화 간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능력 3.04점, 문화 간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 2.73점, 문화 간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능력 3.14점, 문화 간 의사소통 인식에 관한 능력 2.95점으로 하부범주 중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이 다른 하부 범주들보다 낮았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은미[9]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의 문화 간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능력 3.28점, 문화 간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 2.79점, 문화 간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능력 3.36점, 문화 간 의사소통 인식에 관한 능력 3.22점으로 나타났고 하부범주 중에 문화 간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이 이은미[9]의 연구 또한 다른 하부범주들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문화간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이 다른 하부범주들보다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교육의 유연성이 없으며 그로 인해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의 지식증진을 강조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졸업을 한 후 간호사로서 바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1]. 간호사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문화 대상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회복이 지연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12].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문화 대상자를 대면하게 되면 불신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문화간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이런 불신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1]. 하지만 국내 간호대학생에 문화간 의사소통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을 축적하려면 문화간 의사소통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 이 네가지 요인은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들과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역량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 관계를 연구했다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C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다른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참여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있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수정·보완하여 다른 지역 내 여러 간호학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시켜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역량 중 하위 영역인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임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권과 종교적 점점과 문화적, 전문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 탐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정 및 간호진단,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문화건강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e-나라지표. 2018 체류외국인 현황[Internet]. 서울: 한국 통계청. 2019[cited 2019 November 16.]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 김선희, 김경원, 배경의. 간호사의 다문화 여성 출산간호 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4;28(1):87-101. <https://doi.org/10.5932/JKPHN.2014.28.1.87>
3. 박정숙.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2011. 47 p.
4. 채덕희, 박윤희, 강경화, 이태화.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과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 2012;8(1):76-86. <https://doi.org/10.11111/jkana.2012.18.1.76>
5. 김덕희, 김성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수준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13;22(3):159-168.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3.159>
6. 김묘경, 최윤경, 안정원, 김금순. 외국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재방문 의사, 추천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행정학회지. 2017;27(1):63-74.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63>
7. Munoz C, Luckman J. Transcultural communication in nursing. Communication and Human Behavior for Health Science. 2nd ed. Cengage Learning 2005. 356 p.
8. Nam YY. Dental hygiene. charged cultural history, Seoul. 2011;17. 289 p.
9. 이은미. 간호학생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변인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13. 87 p.
10. 이두원. 미국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과 미국인 대학생의 문

- 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지, 2011;19(4):65-84.
11. Henderson S, Barker M, Mak A. Strategies used by nurses, academics and students to overcom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hallenge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6;16(1):71-78.  
<https://doi.org/10.1016/j.nepr.2015.08.010>
  12. 민성혜, 이민영.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2009;11(1):55-63.
  13. 최승희, 김성희, 임명희. 문화적민감성 척도 개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연구보고서. 평택: 평택대학교; 2008.
  14. Campinha-Bacote J.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02;13(3):181-184.  
<https://doi.org/10.1177/10459602013003003>
  15. 장임숙, 이원일.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2011;15(4):177-199.
  16. Liebkind K. Acculturation. in R. brown and S.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st ed. Oxford: Blackwell; 2001. p. 386-404.
  17. Nesdale D, Todd P. Effect of contact on intercultural acceptance: a fiel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00;24(3):341-360.  
[https://doi.org/10.1016/s0147-1767\(00\)00005-5](https://doi.org/10.1016/s0147-1767(00)00005-5)
  18. 송미영.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2010;(41):74-98.
  19. 박향진. 정신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11. 71 p.